



“생명나눔은 보살도 실천의 지름길”

생명나눔실천본부, 중앙승가대서 골수기증 캠페인 학인 스님 52명 동참...대다수 나이제한 걸려 아쉬움

9월 22일 김포 중앙승가대 본관에 마련된 골수기증 희망자 신청 부스. 생명나눔실천본부 자원봉사자들이 “여러분의 3cc가 생명의 빛이 된다”며 목적을 높였다. 골수기증은 재생불량성빈혈과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소중한 일. 기증을 받으려는 봉사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잠시 후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스님네’들이 부스로 몰려들었다. 신청 부스 일대는 순식간에 아담법석이 일어났다.

“아-따. 그러면 어찌케 해야 된다냐잉? 왜 내 피는 안 받는다요? 나이 묶은 피라고 안 받아분다냐? 그러면 안텐당께.”

스님네들은 신청 부스 관계자들을 붙잡고 사정을 한다. 몇몇 스님들은 다짜고짜 제철 간호사에게 굵은 팔등부터 내어보인다.

“스님. 마흔 살이 넘어서서 안돼요. 제철 나이 기준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40세 미만만 가능’ 역시 쓰시지 말고 수업 들어가세요.”

“그문, 대신 헌혈이라도 할랑께. 헌혈에는 나이 제한 없는 것 아니요잉. 스님들 피는 맑고 순수해서 기냥 먹어도 된당께. 헌혈자는 왜 없다냐잉?”

츄체 실랑이가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 그때, 장삼 자락을 휘날리며 홀연히 등장한 스님이 있었으니-

“3학년 스님들은 빠지쇼. 나, 대학원 불교학 석사4학기 법문이요. 내가 부처님 앞에 맹세하오. 이 분들 나이는 20살도 안 됐쇼. 출가한 지 스무 해도 되지 않았다는 말이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일단 제철이라도 해주소. 관세음보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스님까지 나선 차에 본

부도 규정만을 고집할 수 없었다.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따로 신청하는 조건으로 제철을 허락했다.

“왜 골수기증에 나이 제한을 두느냐”는 질문에 이어진 본부 측 답변. “골수기증자의 대기 연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되도록 젊은 사람들에게 등록을 받아놔야 대기 연수가 길어지잖아요. 또 단기간 유전자형 일치 확률도 높아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데, 나이 들어도 골수기증은 할 수 있는데도 말이예요. 저희도 이럴 때마다 난감해요.”

소란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억척스런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의 골수 기증 집념은 제철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리고 3학년 스님들은 1학년 스님들을 데리고 와야겠다며 강의실로 발길을 바빠 옮겼다.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 캠페인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올 6월 초, 생명나눔실천본부 측이 이 대학 총학생회에 행사 참여를 부탁하면서다. 총학생회장 해광 스님(불교학과 3학년)은 “생명나눔이 진정한 보살도의 실천”이라고 강조했고, 260여 학인 스님들도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제철을 하고 나니 겁나게 좋구만잉. 환희심이 난당께. 나 때에 한 사람이 살아 볼게 될 수 있다고 하니 허벌나게 좋아불구만잉. 앞으로 우리 스님네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귀중한 운동을 널리 알려야 쓰겠당께.”(진일 스님, 불교학과 3학년)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은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신청자는 총 52명. 대부분의 학인 스님들이 나이 제한에 걸려 되돌아갔기 때문에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이 9월22일 대학 본관에 마련된 골수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홍보부스에서 제철 사진-고영배 기자

등록자는 생각보다 적었다. 불교학과 교수인 등목자는 생각보다 적었다. 불교학과 교수인 등목자는 생각보다 적었다. 불교학과 교수인 등목자는 생각보다 적었다. 불교학과 교수인 등목자는 생각보다 적었다.

등목자는 생각보다 적었다. 불교학과 교수인 등목자는 생각보다 적었다. 불교학과 교수인 등목자는 생각보다 적었다. 불교학과 교수인 등목자는 생각보다 적었다.

등목자는 생각보다 적었다. 불교학과 교수인 등목자는 생각보다 적었다. 불교학과 교수인 등목자는 생각보다 적었다. 불교학과 교수인 등목자는 생각보다 적었다.

인. 동참한 학인 스님들은 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골수기증,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3일 예산 수덕사에서 시신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재에서는 본부 이사장 범장,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을 비롯해 시신기증자 가족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02)734-8050 김포=김철우 기자

나눔의 저금통 신청	
인천시 학원1동 김영주씨	저금통- 5개 스티커- 5장
나눔의 텃밭	
경기도 용인시 용담사 선재어린 이집(원장 성목 스님)	- 67만1280원
서울시 변인택님	- 4만원
총누적금액 23,858,010원	

■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세요.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 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를 위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준모를 살려주세요”



선천성 심장병으로 4차례 수술 재수술비 없어 후원 손길 절실

태어난 지 2개월만에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7살 어린이가 수술비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 정신지체와 언어장애 3급인 신준모 어린이(사진)는 지난 1997년부터 4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에 심장병이 다시 도져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지능력과 언어구사가 다른 또래 어린이들보다 현저히 떨어져 재활치료도 요구되고 있어 가족들의 애를 더 태우고 있다.

하지만 준모 아버지 신용진(37) 씨는 일거리가 없어 병원비는커녕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 김영선(34)씨도 마찬가지로 형편이다. 의료수급권자로 월 4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긴 있지만, 월세내기도 빠듯하다.

계좌번호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김철우 기자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나눔잔치 열어

동국대 참사랑봉사단(단장 이관제)은 9월 24일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서울시 중구관내 북우이웃 1000여명을 초대해 ‘추석맞이 사랑의 나눔잔치’를 벌였다(사진).

이번 나눔잔치에는 흥기삼 동국대 총장과 성낙합 중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손재현 무용단의 공연, 동국대 동아리 ODC, SSID, AJAX팀의 노래, 단과대풍물패연합의 사물놀이 공연 등이 펼쳐졌다. 2부 순서에서는 만찬과 위문품 증정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02)2260-3049

한편 참사랑 봉사단은 199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학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중구 관내 무의록 노인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 한



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과 지속적으로 결연을 맺고 도움을 주고 있다. 조용수 기자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1천원으로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을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어린이·청소년 범죄에 전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범죄에 창자 전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자 전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민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 이렇게 참여하세요

-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기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분자들의 중개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사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 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인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해 당부드립니다.
-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